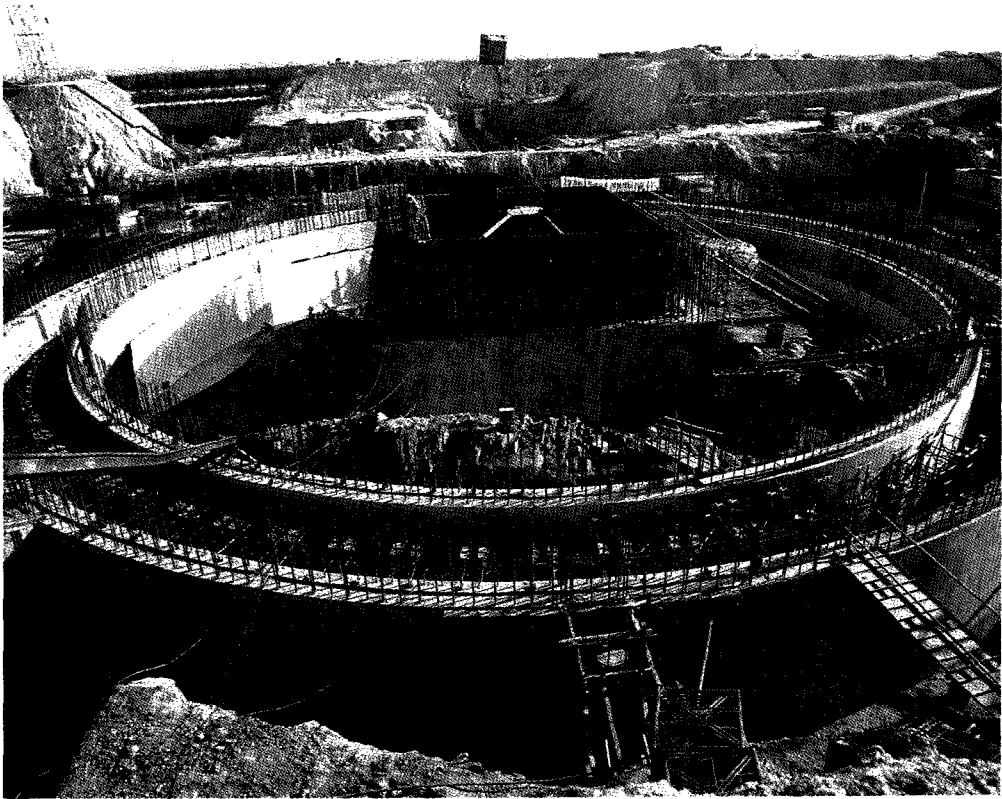




새해 새 설계

品質第一의 經營具顯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울진원자력 3호기 원자로건물 구조물공사

甲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변혁이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대의 급변함을 느끼게 한 해였다.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 후 국가 전반

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며 공직자의 재산공개, 실명제 실시 등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가 취하여졌다.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PLO의 화해,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블럭화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등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혁이 이루어졌던 해였다.

이러한 격동기에서도 동아건설은 원자력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울진원자력 3, 4호기는 본관 굴착을 완료하고 93년 7월 21일과 11월 1일에는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발로 본격적인 구조물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냉각수 취수구 및 취배수로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개월 정도 지연된 건설허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아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연된 공기를 대부분 만회하였고 3, 4호기 냉각수 취배수로와 기 운전중인 1, 2호기 배수로와의 간섭에 따른 시공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적절한 공법을 개발 시행하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ASME 인증서 자격 갱신심사를 우수한 수준으로 통과함으로써 원자력공사 수행을 위한 동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93 전국 품질경영 대회에서 가치혁신(VE)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동아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해외공사에서는 작년도 수주액이 11억 2천 8백만 달러로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만 총 102억 7천 6백만 달러를 수주하는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올려 동아건설뿐만 아니라 한국건설업계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가시적인 사항 이외에도 21세기를 대비한 경영혁신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신년도에는 서두에서 언급한 환경변화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한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품질 제일의 경영 그리고 신상품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주요 산업별 계획을 소개하면, 울진원자력공사는 95년 5월 원자로 설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조물공사 촉진과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둘 것이고,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정관리, 자재

관리, 자료관리, 공사비관리, 인력관리 등 각 분야에 걸친 전산화를 개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전사적인 품질활동을 더욱 강화 시행해 나가고,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산업 재해로 인한 손실 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 국가적,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국가 환수로 사회 간접자본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 동안의 대역사로 조성한 김포 매립지중 150만평에 대규모 해양관광 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그 첫 삽질이 시작될 것이며 공사가 완공되는 1997년에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고객감동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고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선진 건설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작년 9월 리비아 뱅가지 상수도 라인의 준공으로 목마름으로 애태우던 뱅가지 시민은 물론 리비아 국민 전체를 감동 시킨 바 있는 GMR(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동아인의 긍지와 한국 건설업계의 자부심으로 금년도에도 사하라를 육토로 만들기 위한 대역사로서 계속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주선을 다변화 하고 설계, 시공, 시험, 시운전 및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종합 건설업체로서 국제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는 기술개발과 일인당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를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인재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도 병행해 나갈 것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초일류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동아건설의 한해가 될 것이다.